

교육원, 승가교육제도 개선 중간현황 발표

승가대학원 설립 신청 이어져

종단의 승가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종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가대학 교과목 개편 시행 및 각종 승가대학원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교과목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접수한 승가대학은 8월 31일 현재 수석사 동화사 불교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승가대학 등 모두 9곳이다.

교육원은 신청한 9개 승가대학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여건(학인 수, 교직원 수, 교육시설 등)을 심사해 적정 수의 승가대학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편안을 시행할 승가대학이 정해지면 상주 및 외래교수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일정한 교육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가대학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점

차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되, 유예기간을 경과해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승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승가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신청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율학 승가대학원은 동화사 해인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5곳이, 선학 승가대학원은 범어사 백양사 유마

반면 사미 사미니의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제한(기본교육기관 제외), 기본선원 소수정예화 등의 개선안 시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연초부터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양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육원은 내년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지속적인 토의와 설득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영어학교의 경우 학교를 설치할 수도권 사찰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 3월 순조롭게 개원할 전망이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승가교육 개선의 절박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으며,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다”며 “상반기 동안 다양하게 논의했던 개선내용을 수렴해 하반기에는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내용을 진전시키고 그에 따르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si@ibulgyo.com

9개 승가대학 2011학년부터 교과목 개편안 시행

비구니 스님 불교영어학교 내년 3월경 개원 예상

사미 사미니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제한 등 난항

사 등 3곳이,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은 동화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4곳이, 특정교학 승가대학원은 쌍계사(범패), 실상사(화엄), 관음사(정토), 운문사(교직자 양성) 등 4곳이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교육원은 이들 사찰에 대해 교과과정 등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종단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부정적 역사관이 힘을 받는 이유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통합종단 출범부터 개혁종단까지를 주제로 연재 중이다. 불교신문 연재 취지는 불교신문 창간 50년과 2012년 통합종단 출범 50년을 앞두고 현대 불교사를 조명하는데 있다.

역사를 조망함은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재를 제대로 살펴 미래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종단은 우리의 어제를 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해도 단편적이거나 부정적 내용들뿐이다. 사회는 물론 우리 스스로도 현대 조계종을 분규의 역사로 치부하고 만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내지 편견이 종단은 싸움만 하고 아무런 업적이 없으며, 일은 재가신도 혹은 종단과 상관없이 묵묵히 일해 온 스님들이 다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상식처럼 굳어진 데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많은데 종단은 일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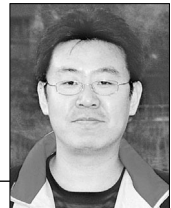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은 종단은 많은 일을 했다. 군중장교 파송,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역

경 도제양성 포교 등 3대사업 등 지금껏 종단이 일군 업적은 집행부와 종단 지도부가 나눈 결과다. 과(過) 못지않게 공(功)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종단 자료 창고에 갇혀 있다.

50년사를 연재하면서 간혀있는 자료를 꺼내 종단이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오늘날의 조계종과 한국불교를 만들었는가를 입증하고자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려 포기했다. 몇 번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가뜰이나 일이 많은 종무원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미안해 중단한 상태다. 그 결과 당시 일간지의 부정적 보도를 참조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기존의 연구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종단의 업적은 또 묻혀간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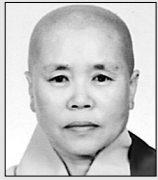
(8월30일 종무회의 결과)



효당스님
산청 황매사



복선스님
진해 관음사



수경스님
진해 장복사



근행스님
영주 석륵사



정타스님
화순 용암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이 지난 3일 사카탈리무가담 주한 파키스탄 대사(오른쪽)의 예망을 받은 자리에서 구호성금 5만 달러를 전달했다. 왼쪽은 사회부장 혜경스님.

조계종,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돕기 나서

아름다운 동행 지난 3일 구호성금 5만 달러 전달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존자의 조국인 파키스탄의 대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한국불자들의 정성이 전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은 지난 3일 사카탈리무가담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망을 받은 자리에서 구호성금 5만 달러를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달에 발생한 대홍수로 파키스탄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서 “하루 속히 피해복구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사카탈리무가담 주한 파키스탄 대사는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해 참상이 말로 못할 정도”라면서 “(한국 불교계가)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인사

했다.

이날 예망에 배석한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은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위로를 표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부임 두 달째를 맞은 사카탈리무가담 대사는 “한국이 몰라보게 발전한 모습에 놀랐다”면서 “이 같은 발전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카탈리무가담 대사는 “다양한 문명의 발상지인 파키스탄은 간다라와 타실라 지역 등에 불교문화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남아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의 파키스탄 방문을 초청했다.

이날 사카탈리무가담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기획국장 만당스님이 배석했다.

◆파키스탄 대홍수=지난 7월말 발생한 최악의 홍수. 파키스탄에서는 80년 만에 일어난 최대 홍수이다. 이번 홍수로 인한 이재민은 2000여만 명으로 추정되며, 300만 ha 이상의 경작지도 물에 잠겼다. 파키스탄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엔은 지난 8월9일 “파키스탄 대홍수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2005년 카슈미르 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때의 피해자들을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전통불교문화원 참선입문 개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분부장 해오스님)이 참선 입문 과정을 위한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기간에 개설한 참선 입문 과정을 호평(好評) 속에 마무리한 전통불교문화원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되는 제3기 참선 입문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어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12월8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문과정을 마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도 개설한다. 심화과정은 10월22일부터 14일까지,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세 차례 진행된다.

전통불교문화원은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는 분은 누구나 환영한다”면서 동참을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수 기자

비락, 아름다운동행 건강음료 기부

주식회사 비락이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쥬쥬 등 건강음료 600박스(시가 1800만원)를 기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2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물 앞에서 어르신들이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종로노인복지관, 광진푸드마켓 등 총 6곳의 복지시설에 각 100박스씩 배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이사 혜경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비락 유통부장 강종구 이사, 그리고 6곳의 복지시설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강종구 이사는 “비락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올여름 폭염으로 지쳤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제2회 불교청소년지도사고시

- 시행일시** 불기2554(2010년) 10월 30일(토) 오후 2시 ~ 5시(필기, 면접)
- 응시장소**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부산- 대한불교교사대학 강의장 ※ 고시장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조계종 스님 및 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종단 포교원에서 지정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가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청소년 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중립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청소년 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신도법 제15조의 신도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중 청소년 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5)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청소년 포교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종단 포교사 중 청소년 포교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원서교부, 접수 및 합격자 발표

- 가. 원서교부 :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uddhism.or.kr) 키즈부터 어린이포교 뉴스(http://kidsbuddha.org)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공지사항(http://www.paramita.or.kr)
- 나. 접수마감 : 불기2554(2010년) 10월 15일 오후5시까지 (우편접수시 마감 당일 소인 유효)
-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접수 ※ 접수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문의 및 접수 :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 담당 홍선영 우:11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전화 02) 2011-1892 팩스 02) 720-7065
- 마. 최종합격자 발표 : 11월 11일 예정(종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 키즈부터 어린이포교 뉴스 등)
- 바. 합격기준 : 종단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규정에 의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

전행방법

- 1) 서류전형(응시자격에 준하여 검토함 - 공통서류 필참)
- 2) 필기 및 면접(필기 30%, 면접 70% 반영)

시험과목

- 1) 필기고시 - 불교 일반(기초교리), 청소년 포교 일반 ※ 청소년 불교입문(조계종 출판사), 청소년 법요집(포교원) 참조
- 2) 면접고시 - 인성 및 기본예절, 사회활동 및 신생활, 청소년 포교활동, 목탁습의

시험기간

- 1) 필기고시 14:00 - 15:00(객관식 20문항, 단답형 9문항, 논술 1문항)
- 2) 면접고시 15:30 - 17:00(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1) 공통 서류(필참)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신도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자기소개서 1부 - 승적증명서(승려에 한함) - 제적사찰주지스님 추천서 1부(제가자에 한함)
- 2) 개별 서류 - 응시자격 1, 3, 4호 : 이수증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응시자격 2, 6호 :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 2, 3, 4, 5, 6호 : 청소년포교활동 경력 증명서(제가자에 한하며 청소년 포교활동 경력을 기재하여야함)

정통 日本 불교 성지를 가다

국내 유일 동경주변의 성지순례와 온천욕 코스 그리고 호법대사의 발자취를 따라떠나는 정통 시코쿠 88개 성지 순례의 길 일본인들이 죽기전에 꼭 돌아야만한다는 가슴 벅찬 시코쿠 88사찰 순례가 이제 시작됩니다.

도쿄지역 불교성지 순례

(우시쿠대불, 니혼지, 하세데라, 기마쿠라대불, 센소지 등 방문) 4일 1,490,000원~ (일, 월, 화, 수 출발)

시코쿠 88개 불교성지 순례

5일 3회 코스 1,590,000원~ (매주 금요일 출발) 7일 2회 코스 2,090,000원~ (매주 금, 토 출발) 13일 완주 코스 3,190,000원~ (매주 금, 토 출발)

4명이상 출발가능(요금 별도문의)

※상품설명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사전 예약 필수)